

# 브라보 안산



제 387 호 2015년 1월 7일 발행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 blog.naver.com/cityansan
- twitter.com/ansancityhall
- facebook.com/ansancity3
- story.kakao.com/ch/ansancity

## 02 | 특집

제종길 안산시장 '신년사'

## 04 | 시정이슈

환경부, 대부도·대송습지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 06 | 청소년·학교

뫼골 거주 고려인 초등학생, 태권도를 배우다

## 08 | 시정·이미지개선

안산시 고잔지구 행복주택, 해결책 마련해

무료 정기구독 신청하세요 TEL : 031-481-2042 FAX :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



수암봉 일출

Photo-essay

해가 떠오른다.  
수암봉 정상에서 새해 첫 일출을 맞는 사람들의 얼굴이 새로운 희망으로 붉게 타오른다.  
동장군에도 굴하지 않고 개선장군처럼 깃발을 휘날리며 아침 해를 맞는 이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은다.  
양처럼 평화롭고 푸른 하늘처럼 속이 시원해지는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을미년(乙未年) 새해, 청양(靑羊)의 기운으로 힘차게 새 날들을 시작할 것이다.  
'새해는 새로워라 아침같이 새로워라'던 피천득 시인의 시처럼 날마다 새롭게...

글 신선영 · 사진 김진국

#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77만 안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이 때 상서로운 청양의 기운을 받아 내내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세월호 참사라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여러분의 온정과 노력 덕분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워낼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그 희망이 결실을 맺어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이 좀 더 풍족해지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제가 취임한지 반년 만에 맞는 2015년 새해입니다. 이 반년이라는 시간은 '안산'이라는 배를 15년 후 시민 모두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이제 우리는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중심 안산시'를 만들어가는 항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민여러분과 함께 돛을 올리고 파도를 헤쳐나가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또한 다양한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예방하며 치유하는 것이 저와 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시민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서 해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눈 앞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 시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생명도시를 조성하여 사람과 생명의 가치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행복의 필수요건이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성과 교훈을 통하여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피해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회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가교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겠습니다. 세월호로 상처받은 시민들이 아픔을 잊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 온정을 나누는 생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의 혁신을 통하여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CPTED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강소기업이 많은 경제가 튼튼한 경제입니다. 창조와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들과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재생·혁신사업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을 적극 육성하여 기초가 튼튼한 안산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특화된 상권을 조성하고 차별화된 지원과 개발을 통해 상권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희망을 잃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도 구축하고, 튼튼한 복지로 삶의 걱정을 덜어주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세계적인 환경·생태 도시, 숲의 도시를 만드는 기반을 다져 나아가겠습니다.**

안산을 도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도시 안에서 사람과 다양한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도시, 숲의 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또한 각종 생태서식지와 야생동식물 보호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향상시키고, 하천의 수질 개선과 악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작정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심 속 나무들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시민들께 정서적·문화적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대부도는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안산의 보물섬으로 만들겠습니다. 새해부터 새로 설치하는 대부해양관광본부는 어느 도시보다 주민이 살기 좋은 대부도를 만드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대부도를 수도권 최고의 주거환경을 갖춘 휴양의 섬, 힐링의 섬으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관광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활용하여 안산을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변모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가들이 만나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문화가 살아 숨쉬는 안산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대부도 등 안산의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전 세계에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지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회의와 전시·박람회, 관광산업을 융합한 MICE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안산을 해양, 관광, 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찾을 수 있는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다문화 특구'는 안산시 행정의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6만여 명의 외국인인 우리 시의 무한한 잠재력이며 문화적 다양성은 우리 시의 큰 장점이자 성장동력입니다.

다문화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다문화 관련 국제사회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안산시의 주인은 바로 안산시민입니다. 건전한 시민문화 함양과 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교육과 능력개발의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시민의 신뢰를 얻어 시민 중심의 가치를 실현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주변의 정치·경제적 현실과 여러 지표들은 올 한해의 시정이 그리 녹록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목표를 달성해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여 어떤 분은 제게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그치지만 모두가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안산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부진 각오로 힘찬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저부터 시장으로서 안산을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저와 함께 창의적인 마인드와 혁신적인 사고로 재무장하고 우리 시를 가장 투명하고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아가십시오.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시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을미년)을 맞이하며

안산시장 제 20기 2 올림



## 2015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I)

새해 1월 1일부터 면적 100m<sup>2</sup>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금연 단속이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오르고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등 정부의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주택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변화하는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정부는 저소득층 월세 대출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도 늘린다. 또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을 돕기 위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집주인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도입된다. 특히 난임 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사라져 자녀를 갖고 싶어도 의료비 부담에 힘들어하던 난임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제도 변화가 많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 최저임금 5,580원, 담뱃값 2,000원 올라

△ **최저임금 인상**=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4만4,640원,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1백1십6만6,220원 수준이다.

△ **담뱃값 2천 원 인상, 모든 음식점 금연**=1월부터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2천 원 인상돼 4,500원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부담 단계적으로 감소**=8월부터 전체 의사 중 특진 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까지 낮아져 선택진료비 부담이 약 35%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5인실부터였던 일반병실이 9월부턴은 4인실로 확대 적용되고, 대학병원의 일반병실 의무 확보 비율도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7월부터 실직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 크레디트가 지급된다. 실직자는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1월부터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 대상이 기존 1~3급에서 6급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출산뿐 아니라 유산을 경험한 여성 장애인은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100만 원이 지원된다.

△ **전국 초·중·고교 자율방학제 도입**=3월부터 학교별로 자유롭게 방학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율방학제가 도입된다.

△ **전국 중학교 50%, 자유학기제 시행**=3월부터 전국 중학교의 50%에 해당하는 1,500개교에서 1학년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없이 직업체험, 토론, 실습 수업 등 진로탐색 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2016년부터는 전면 도입된다.

### 난임 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없애

△ **자녀장려세제 도입**=부부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녀 수 제

한은 없다. 다만 해당 가구는 1주택까지 보유할 수 있고, 가구원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 등 재산합계액(전세금 포함)이 1억4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난임부부 지원 강화**=7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던 난임 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사라진다.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난임시술비의 15%를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는다.

△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내년 1월부터 600달러 면세한도를 초과한 해외여행자가 이를 서면으로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에서 내야 할 세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내야 할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물게 되고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2번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60%의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확대**=집을 담보로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은 집주인은 이자에 대해 1천8백만 원 한도로 2016년 1월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1천5백만 원이 한도였다.

△ **자동입출금기(ATM) 마그네틱 신용카드 이용 금지**=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출을 받을 수 없다. 카드대출은 카드 앞면에 집적회로(IC) 칩이 있는 IC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 제야의 밤, '안산 천년의 종 타종식' 열려

2014년 12월 31일 제야의 밤, 화랑유원지 단원각에서는 새해를 여는 '안산 천년의 종 타종식' 행사가 열렸다.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원각 종루 앞에는 새해에 대한 꿈과 희망을 안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제야의 밤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달집소지에 버릴 액(厄)과 받고자 하는 복(福)을 적고, 신년 운수를 보며 타종을 기다렸다.

식전행사로 안산시립합창단 남성 8중창단이 '오 솔레 미오', '희망의 나라로'를, 박은주 바이올리니스트는 '렛 잇 고', 베토벤의 '합창'을 연주했으며, 한국문인협회 안산지부 이윤수 시인은 새해를 축하하는 자작시 '태양이 머무는 안산'을 낭송했다.

갑오년(甲午年) 한 해가 가고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새롭게 열리는 자정이 되자 33번의 종소리가 깊고 넓게 울려 퍼졌다. 안산시장, 안산시의회, 안산문화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48명의 기관·단체장과 시민들이 타종을 하며 지난해 큰 아픔을 겪은 시민들의 가슴을 달래주고, 2015년 새로운 희망을 기원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상서로운 청양의 기운을 받아 시민들이 건강하고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며 "세월호 참사라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워낸 시민들의 저력을 믿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안산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년메시지 낭독에 이어 달집태우기가 진행됐다. 달집은 생솔가지와 짚 등으로 만들며 대나무를 넣어서 그것이 터지는 폭음으로 마을의 악귀를 쫓는다고 한다. 달집태우기는 버릴 액과 받을 복을 적은 소지를

새끼줄에 끼워 달집과 함께 태우면 피어오르는 연기와 더불어 새해를 맞는 행사다.

시민들은 버리고 싶은 액으로 고집, 심술, 담배, 게으름 등을 적었으며, 받고 싶은 복에는 주변인들의 건강, 꿈, 화목한 가정, 취업, 다이어트 등을 소원했다.

김다해 씨(와동, 26세)는 "남자친구와 함께 새해를 맞으러 왔습니다. 날씨가 무척 춥지만 따뜻한 한방차도 마시고 운세도 보며 재미있네요. 사고가 많아 우울했던 한해를 보내며 새해에는 사람들이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임현지 학생(신길고3)은 "해마다 보신각 타종행사를 텔레비전으로 보며 늘 아쉬워하기만 했는데 오늘 우리 고장에서 하는 타종식에 와보니 사람들도 많고 즐거워요.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서 2015년이 무척 기대됩니다. 부모님 회사가 잘 되고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다.

이날 타종행사 마지막 순서로 띄운 하얀 풍선이 희망으로 반짝이며 새롭게 밝아오는 2015년의 밤하늘을 수놓았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 환경부, 대부도·대송습지 생태관광지역 지정



안산시 대부도와 대송습지가 국가지정 생태관광지로 발돋움한다.

지난 12월 22일 환경부는 '2014년 생태관광인의 날' 행사를 열고 안산 대부도·대송습지 등 5개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대부도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섬으로 100km에 이르는 수려한 해안선과 광활한 갯벌을 만날 수 있으며, 특히 대부해솔길과 대송습지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경기도의 유일한 보물섬이다.

대송습지는 현재 람사르습지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서해안 최대의 습지지역으로 큰고니, 큰기러기 등을 비롯한 130여 종의 조류를 관찰할 수 있어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안산시는 환경부·지역 환경·관광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 세부 방안을 수립한 후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대부도·대송습지와 연계된 생태관광 인프라 및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시가 2014 생태관광지역에

지정되어, 경기권 최대 생태관광지역 조성에 탄력이 붙었으며, 대부도를 경기도 관광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생태관광지역은 안산 대부도·대송습지를 비롯한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괴산 산막이옛길·괴산호,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 서귀포 효돈천·하례리 마을 5개소이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의 생태자원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생태관광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부로부터 상담, 홍보,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 문의 : 안산시관광과 (☎ 031-481-2105)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 교육특구 지정, 국립트라우마센터 재정 국가 부담 요청

안산시·시의회 한 목소리로 정부에 약속 지키길 건의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한 목소리로 "교육특구 지정 등 당초 약속한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12월, 4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관련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16회 안산시의회(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전준호 의회운영위원장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건의문'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안산의 교육 특구 지정, 국립트라우마센터 재정 국가 부담, 안산 지역 공동체 회복 및 경제활성화 지원, 세월호 인양 등 네 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세월호 참사로 안산시 학생들



이 커다란 상처를 입었으며, 안산지역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라며, "안산을 '교육특구'로 지정해 교육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또 "안산시에 건립될 국립트라우마센터는 각종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전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것이기에 당연히 국가의 사무"라며, "국가가 주체가 돼 국가 재정으로 건립,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안산의 지역 공동체가 상당한 침체와 고통을 겪고 있어 안산시와 시민들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활기찬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세월호 인양 방안을 확정해 빠른 시일 내에 인양을 진행해 '마지막 한명까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제종길 시장은 "세월호 참사의 최대 피해지역인 안산시가 국가를 대신하기에는 어렵고 버겁다"며 "정부는 안산시가 세월호 참사의 수습과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 선포시에 약속했던 내용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 안산시 음식문화 중심 관광도시 육성에 총력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시 찾고 싶은 음식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

안산시는 먹거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건강한 음식문화 중심 관광도시로 발돋움 하기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012년과 2014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통음식거리 땡이골과 대부도 방아머리 지구가 각각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특색과 품격을 갖춘 외식업지구로서 재탄생했다.

지난 10월에는 제13회를 맞이한 전국 테마음식 경연대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기도가 후원해 안산시 특산물인 해산물을 주제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의 뛰어난 요리법을 찾아냈고, 이들의 요리를 안산의 음식점을 통해 널리 알릴 계획도 세웠다. 또한 경연대회에 참가한 업소 중 입상한 곳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상, 경기도지사 상과 함께 수상 내용을 알리는 외부 부착용 표지판, 수상 사진 액자를 지원하고, 시정방송과 안산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



등을 통해 각종 홍보를 도왔다.

12월에는 경연대회 참가업소를 중심으로 안산 맛집, 대표 음식거리를 모두 담아낸 '안산은 지금 품미작렬' 홍보책자를 제작해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기관과 관광객,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대부도 방아머리를 중심으로 음식문화 중심 관광도시 육성사업을 펼쳐, 대표 향토음식 개발과 음식축제 개최 등 대부도 방아머리를 우수 외식업지구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기도 신규 사업 제안으로 안산시 고유 가정음식 개발과 2015 전국 테마음식 경연대회, 땡이골 전통음식문화 축제,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푸드 트럭 영업은 영업신고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기존상권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매뉴얼 안내를 통해 안산의 음식명물로 거듭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먹거리는 그 자체가 관광소재가 되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산업 파급 효과가 커서 관광 산업화를 통해 성장을 가속화 하기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산이 음식관광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식품위생과 (☎ 031-481-2231)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 ‘0416 기억하고 함께 걷다’ 행사 열려

세월호 가족, 안산시민을 위한 감사 오찬 마련해



란 목도리, 자수를 놓은 브로치, 코바늘로 뜨개질한 핸드폰 고리, 압화로 만든 카드, 노란 리본에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났다. 현재 유가족들은 분향소 옆 컨테이너 박스에 ‘엄마의 이야기 공방’을 만들어 진상규명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동혁 엄마, 김성실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해야 했던 지난 8개월, 어떻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다니게 된 것이 ‘엄마의 이야기 공방’이었다”며 “지금 만나는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으로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4계절을 겪는 동안 항상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해준 안산시민들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이런 시간을 마련했다”며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극단 동네풍경이 준비한 ‘별망엄마’ 연극으로 문을 연 행사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세요’ 영상 상영, 어린이 합창단 공연, 아픔을 함께한 안산시민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진도 팽목항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수기 씨는 “진도 팽목항에서 ‘내 새끼 살려내라’며 울부짖던 한 학부모를 잊을 수 없는데 그때 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위로의 말 몇 마디 뿐이었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있으니 힘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후 택시 운전을 하며 자원봉사에 발 벗고 나섰던 상록모범운전자회 임영호 씨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아빠로서 세월호 참사 이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택시로 유가족들의 발을 자처하며 함께했던 시간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가족과 안산시민이 함께 부르는 노래 ‘약속해’ 합창이 이어졌다. “우리가 너희의 엄마다 / 우리가 너희의 아빠다 / 너희를 이 가슴에 묻은 우리 모두가 엄마아빠다”로 시작해 “세상을 바꾸어 낼거야 / 약속해 / 반드시 약속해”로 끝나는 노래 가사를 들으며 참석한 시민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후 가족대책위와 시민대책위가 마련한 점심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행사는 마무리 됐다.

체육관 뒤에서는 ‘동행0416’회원 모집, 희망메시지 달기, 희망나무 지장찍기 등 부대행사가 열렸다. 세월호와 함께하는 안산시민의 모임 ‘동행0416’은 매월 16일 0416을 기억하는 작은 실천을 하며,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는 담소모임을 진행한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세월호 참사가 만든 인연은 안산에 새로운 연대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는 지난 12월 20일 와동체육관에서 자원봉사자와 안산시민을 초대해 감사오찬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사고 직후 팽목항과 분향소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자원봉사자들과 유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남아있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찬거리를 챙겨줬던 동네이웃들, 진상규명을 위해 서명운동과 농성장에 함께해준 시민활동가, 단원고 3학년 학생 등 500명이 참석했다.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40여 명도 전라도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안산까지 상경했다.

이날 참석한 시민에게는 유가족들이 손수 한 땀 한 땀 정성들여 만든 선물이 전해졌다. 직접 뜨개질한 노

## 어린이가 진짜 필요한 놀이터를 만들다

단원구 Child Club사업 ‘체인지 더 놀이공간’ 사업보고회 가져

단원구는 지난 12월 18일 Child Club사업 ‘체인지 더 놀이공간’ 사업보고회를 열고, 놀이터를 직접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Child Club사업 ‘체인지 더 놀이공간’은 아동중심의 어린이공원 개선 사업을 말한다.

그동안 어린이공원들 만들 때,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조성·관리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용주체인 어린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었다.

단원구는 지난 11월 6일 세이브더칠드런 서울 경기 지부, 단원구 관내 5개 지역아동센터와 Child Club사업 ‘체인지 더 놀이공간’ 협약식 및 발대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세이브더칠드런 서울경기지부에서는 어린이들의 활동 모니터링 교육, 정책 제안활동 진행, 활동집 발간 등의 역할을 맡게 됐고, 지역아동센터(구세군와동, 군자, 꾸러기마을, 안산, 이웃사랑다문화)는 참여아동 관리, 모니터



링 활동, 보고서 작성 등 어린이들이 지적한 어린이공원 개선사항들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활동을 펼쳤다. 단원구청은 이 모니터링 결과를 어린이공원 시설물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에는 단원구 5개소 30명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제안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방법의 개선안이 발표됐다.

이날 단원구 관내 놀이공간을 직접 체험해 보았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어린이 공원 내 부족한 놀이기구와 연령별로 이용이 가능한 놀이 시설들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단원구는 이번에 아동들이 건의한 사항을 2015년 사업에 반영해 어린이공원을 아동 친화적이고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향후 어린이공원 개선사항들과 그동안 아동들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종합하여 책자를 발간하고, 향후 단원구 어린이공원 개선 본보기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 아동들은 권리의 주체자로 지역사회환경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구는 놀이터 주 이용자인 어린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만족도 높은 어린이 공원 개선 계획을 만들면서 안산시 전체 어린이공원 변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단원구 도시주택과 (☎ 031-481-6412)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 태권~ 우렁찬 기합소리만큼 웃음소리도 커져요

### 뗏골 거주 고려인 초등학생, 태권도를 배우다

초록색 매트가 깔린 넓은 태권도장에서 맨발로 뛰 구는 아이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밝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친구들과 장난치거나 준비운동을 하는 아이들 중 한국어가 아닌 우즈베크어를 쓰는 아이들이 보인다. 이 아이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살다가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온 아이들이다. 2013년에 한국에 들어온 김예브게니(원곡초 5학년)군은 “태권도가 하고 싶어 엄마를 졸랐어요. 친구들과 함께하니 더 재미있고 좋아요”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내체육 고려인 동포 지원단체인 너머와 안산시평생학습관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낸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이하 GT사업)가 선정되면서부터였다. 마을리더교육, 주민강사교육을 거쳐 사3동과 선부2동 뗏골 지역에 학습마을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GT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고려인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 중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싶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커 안타까워한다는 것을 알고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지난 11월부터 선부동에 소재한 진산태권도장에서 20여 명의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게 되었다.

하얀 태권도복에 빨간 띠, 품삐를 맨 아이들과 하얀 띠를 맨 고려인 자녀들이 허물없이 어울리는 모

습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연상하게 한다.

김수진 관장은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뛰어 다니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잘 따라한다. 반복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라 말이 서툰 아이들도 곧잘 따라하고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서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아이들도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좋은 어른들이 곁을 지켜주고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줄 때 그 시간은 한결 단축되고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의 까만 노동자가,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는 모습이 백 마디의 말보다 아이들의 감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었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 소통의 다리를 놓아드립니다

### 대부고 학생들, 경로당 어르신께 컴퓨터 수업해

단원구는 겨울 방학을 맞은 대부고등학교 1학년 학생 4명을 경로당 IT 강사로 위촉해 찾아가는 컴퓨터 교육을 진행한다.

대부도 소재 경로당 5곳에서 12월 31일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컴퓨터 수업은 대부고등학교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컴퓨터 수업은 처음 접하는 어르신들 고려해 자판 익히기부터 시작해 이메일 만들기, 사이트 검색 후 신문·날씨 찾아보기, 게임하기, 노래듣기, 인터넷에 접속해 자신의 집주소를 입력한 후 실제 거리를 보는 듯 사진으로 집을 찾는 방법, 버스 검색, 사진

검색, TV편성표 찾기, 한글문서 만들고 저장하기, 한글을 한자로 변환하기, 도형 삽입하기 등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로 활동하는 신미라, 유연지 학생 외 2명의 학생들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어 무척 보람되게 생각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르신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방학은 특히 더 보람된 방학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중부흥 경로당 회장의 손녀인 신미라 학생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할아버지 친구분들에게 가르

쳐드리는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면서도 걱정이 된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좋은 수업을 위해 의견을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 보람된 방학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어르신들 위해 게임과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찾기, 편지 쓰기 등을 수업에 접목해 컴퓨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한다.

단원구청은 정보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수준별 맞춤형 IT 교육을 연중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을 원하는 경로당은 단원구 행정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단원구 행정지원과 ☎ 031-481-6300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 화정동 추억의 얼음 썰매장 개장

### 2월 2일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

안산에서 보기 드물게 넓은 들판을 가진 화정동 꽃우물 앞에 얼음 썰매장이 개장했다.

안산 마을 썰매장 중 가장 오래된 화정동 얼음 썰매장은 700평 규모의 마을 논에 만들어져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놀이 체험 공간이다.

전통나무썰매와 눈썰매 등 200여 대의 썰매를 준비해 적은 비용으로 온 가족이 함께 얼음 썰매를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넓은 들판에서 팽이치기와 연 날리기도 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다.

비닐하우스 안에 만든 휴식공간에서는 몸을 녹이며 컵라면이나 코코아 같은 간단한 간식거리 등을 즐길 수 있어 가족들과 색다른 겨울의 추억도 남길 수 있다.

썰매장은 선부3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순수 봉사활동으로 운영되며, 이곳에서 나온 수익금 전액은 불



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된다.

2013년 연말 겨울부터 2014년 연초 겨울까지 발생한 수익금 6백여만 원은 선부3동 유관단체의 김장 행사에 쓰여 450여 가구에 김장김치로 전달됐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만든 썰매를 대여할 수 있는 화정동 얼음썰매장의 이용요금은 2천 원이다. 내년 2월 2일까지 운영되며, 이용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다.

화정동 영어마을 앞에 위치한 얼음썰매장은 2010년 선부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친환경농업지구 2,500㎡ 논에 처음 조성한 이후, 매년 5천여 명 이상 다녀가는 겨울철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농촌의 전통 문화인 겨울 얼음썰매는 거의 자취를 감췄지만, 화정동 꽃우물마을은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는 꽃우물이 있어 얼음썰매장 조성에 최적의 장소가 됐다.

어른들은 한 겨울 끽끽 언 무논에서 얼음썰매를 타며 동심을 다시 느껴보고, 아이들은 야외에서 신나게 놀고, 불우이웃까지 도울 수 있는 1석 3조의 기쁨이 가득한 화정동 얼음썰매장에서 올 겨울 색다른 추억을 쌓아 보는 건 어떨까.

| 문의 : 선부3동 주민자치위원회 ☎ 010-5470-3292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 중앙도서관이 추천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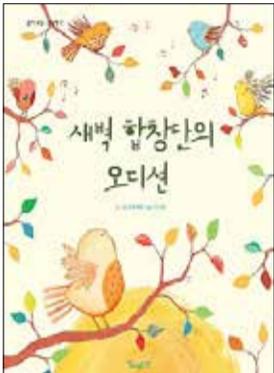
「들리즈, 유동의 철학」에서 '시간'이라는 관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김선영 작가는 "시간은 흐르는 것이지만 흘러간 시간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시간은 지금의 이 순간을 또 다른 어딘가로 안내해 준다"고 말한다.

한 해의 마지막 날, 그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은 끝이면서 또 다른 한 해의 시작이다. 새롭게 펼쳐진 날들이 우리 곁을 스친다. 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책을 읽으며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보자, 새벽 같은 하얀 겨울에...

### 아동

#### 「새벽 합창단의 오디션」

수잔 바턴 / 같이보는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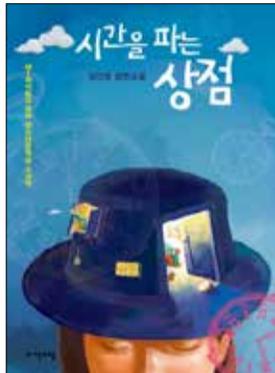
새벽 합창단이 되지 못한 나이팅게일 재재의 좌절과 자신만의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되는 가슴 벅찬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다. 이야기가 담고 있는 주제를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일러스트가 잘 살려주고 있다.

평소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이 자신만의 장점을 발견하도록 용기를 주고,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 또 아이들이 자신 안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늘 지켜봐주고 지지해주는 게 어른들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도 일깨운다.

### 청소년

#### 「시간을 파는 상점」

김선영 / 자음과모음



소방대원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빠의 뜻을 이어받은 주인공 운조는 인터넷 카페에 '크로노스'라는 닉네임으로 '시간을 파는 상점'을 오픈해 손님들의 어려운 일을 대신 해주면서 자신의 시간을 판다.

철학적이고 관념적일 수 있는 시간의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이 소설은 추리소설 기법으로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끌어들이며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게 한다.

### 성인

#### 「새벽을 여는 남자」

오평연/행복에너지



저자는 1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두가 잠든 시간에 페이스북 등에 자신의 생각을 적었던 글들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페이스북으로 수많은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저자의 인간미 넘치는 어투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전한다. 그리고 주변으로 동심원처럼 퍼지는 따스한 온기를 담은 글들은 독자 스스로가 현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행복의 의미와 인생의 묘미에 대해 자문하게 만든다.

|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 031-481-3864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 연재 육아상식

## 잘못된 아이 행동을 바로잡는 3가지 전략

아이들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행동 수정에서 사용하는 대표 방법은 강화(reinforcement), 처벌(punishment), 그리고 소거(extinction)다. 비록 심리학자들이 강화와 처벌, 소거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했지만, 이 방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부모들이 사용해 온 것들이다. 자녀가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한다면 칭찬이나 선물을 주면서 또 그런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강화를 사용하는 것이다. 강화란 이처럼 어떤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자극을 제시하거나 제거한다.

처벌과 소거는 이와 반대로 어떤 행동을 없애거나 빈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처벌과 소거의 목적은 같지만 방법이 다르다. 처벌은 어떤 자극을 제시하거나 제거하는 보다 적극적 방법이라면, 소거는 의도적으로 관심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수동적 방법이다. 만약 자녀가 잘못했다면 부모들은 야단을 치거나 매를 든다. 자녀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처벌을 사용하는 것이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보기 싫은 행동을 하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데, 이는 소거를 사용하는 것이다.

세 가지 중에 부모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무엇일까? 바로 처벌이다. 처벌은 시공간을 초월한 대표적인 행동 통제 방법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들은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없애기



위해 혼을 내거나 매를 든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처벌보다는 강화와 소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나쁜 행동을 없애기보다는(처벌), 나쁜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소거) 그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좋은 행동을 키워주는 것이다(강화).

처벌을 가급적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부작용 때문이다. 처벌이 약할 경우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강화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평소 부모가 바빠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할 경우 아이들은 부모의 짜증이나 잔소리도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부모는 혼을 낸다고 내지만, 오히려 아이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부모의 관심을 끌만한 나쁜 행동을 계속한다.

인지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은 왜 혼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 부부는 아이에게 매를 들기 전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준다. 하지만 나중에 물어보면 그 이유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아이가 기억하는 것은 아빠와 엄마가 무섭다는 감정뿐이다. 이처럼 처벌이

너무 약하면 강화로 작용하고, 너무 강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기에 심리학자들은 가급적 처벌 대신 강화와 소거를 사용하라고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처벌의 부작용(강화로 작용, 마음의 상처)에 더해 한 가지가 더 있다. 특히 매를 들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아이에게 심어 줄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폭력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의 경우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음을 밝혀냈다. 부모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아이를 때리면, 아이는 폭력이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큰아이에게 매를 자주 대면, 아이는 동생에게 매를 댈 수 있다. 큰아이에게 큰 소리로 혼낸다면, 아이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동생에게 큰 소리로 "저리가!"라고 말하게 될 수 있다. 아이는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 났기 때문이다.

여러 모로 처벌은 위험하다. 부작용이 많다. 득보다 실이 크다. 그럼에도 처벌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으니,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자료제공 :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415-2271~3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 안산시 고잔지구 행복주택, 해결책 마련해

고잔역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행복주택'이 지역 내 재건축 단지 '소형주택'으로 대체·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행복주택 시범지구 중 '안산 고잔'을 포함한 전국 5곳을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시와 시의회, 시민들이 재건축 단지와의 문제, 주차장·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 복합개발로 인한 상권침체 등의 이유로 지정철회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이후 민선6기 제종길 시장이 취임하면서 행복주택 시범지구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를 방문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침내 해법을 도출하는데 합의했다.

안산시는 고잔지구를 대체할 대안으로 안산지역 내 재건축과 연계한 행복주택 공급방안을 제안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검토하여 수용하면서 마침내 해결방안을 찾는데 성공했다.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추가로 확보되는 소형주택을 LH 등 공공기관이 인수하여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가 제안한 재건축과 연계한 행복주택 공급방안이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의 소형주택을 공급한다는 행복주택의 기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수용하게 됐다.

그간 안산시, 안산시의회, 지역주민 등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담보상태에 있던 고잔지구 시범사업이 해결되는 결과뿐 아니라 다른 시범지구 사업들도 지부진한 상황에서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선도적으로 제시해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을 해소해 상생하는 행정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안산시 도시계획과 ☎031-481-2373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 안산시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이용시간 30분 연장

이용시간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이용시간이 오전 7시30분에서 오전 8시로 30분 연장된다.

안산시는 학교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학교들과 협약을 맺고 지난 22일부터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이용시간을 당초 오전 7시 30분에서 오전 8시로 출차시간을 연장했다.

시에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주변 학교들과 주차장 야간개방 협약을 맺어왔다. 지난 2012년 본오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본오중, 부곡중, 석수

초, 광덕초, 상록중, 본원초, 부곡초 8개 학교가 주차장 개방 협약에 참여해 총 379면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왔다.

하지만 본오초·부곡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주차장 운영시간이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30분까지로 제한돼, 이른 아침에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시민들이 학교주차장 이용을 꺼리는 주된 요인이 됐다.

이에 시는 학교 측과의 협의를 통해 본오중, 부곡중, 본원초, 광덕초등학교에도 아침 출차시간을 오

전 8시까지로 30분 연장 운영해,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학교주차장 이용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출차시간을 연장해 이용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이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교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석수초, 상록중학교도 주차장 개방시간에 대해 학교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작년 7월 본원초등학교와 부곡초등학교에 4억1천3백여만 원을 들여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과 폐쇄회로(CCTV), 보안등을 설치해 학교의 안전과 학교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안전까지 고려했다.

학교주차장은 사전에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학교주차장 이용 신청은 교통정책과 주차장 담당(☎031-481-2957)과 동 주민센터, 각 학교 주차장 관리실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안산시 교통정책과 ☎031-481-2972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 혼인신고 하세요? 전입신고도 함께 할 수 있어요!

###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에 OK~’ 서비스 인기

상록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에 OK~' 서비스가 각각 위치가 다른 행정기관 두 곳을 방문해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해야 했던 신혼부부들의 발품을 줄여주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한 부부들은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

상록구청의 이번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에 OK~' 서비스는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구청을 방문한 신혼부부에게서 전입신고서도 함께 받아, 혼인신고서는 구청에서 접수해 처리하고 전입신고서는 해

당 지역 주민센터로 보내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개선한 것으로, 원 스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면서 해당기관을 따로따로 방문해야했던 주민의 불편을 줄였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에 OK~'서비스는 2014년도 처리 건수가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751건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편의를 고려한 행정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는 반증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역지사지의 자세로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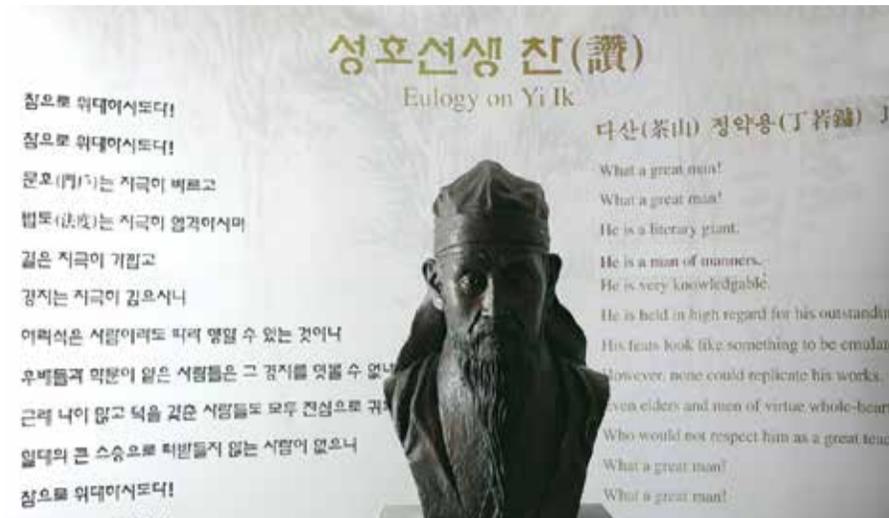
도 주민편의 위주의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더 향상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 가보(家寶), 가학(家學)의 전통이 빛나다

## 성호기념관, '가보'특별전 열어



성호기념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은 오는 3월 8일까지 성호 이익(星湖 李瀼, 1681~1763)을 배출한 여주 이씨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보와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을 연다.

가학의 전통은 고위관직에 올라 가문을 일으킨 소릉 이상의(少陵 李尙毅 1560~1624)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전시는 가학으로 내려오는 선조들의 행적을 보물로 만들어낸 후손들의 이야기이다.

보물 1673호로 지정된 천금물전(千金勿傳 2010년 10월 25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이익 선생의 부친인 매산 이하진이 53세 때 남긴 친필 서첩으로 '천금을 준다 해도 그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말라'는 뜻으로 '금전이 아닌 대의를 추구하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또한 거문고 옥동금(玉洞琴 2014년 10월 7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옥동금이 만들어지기까지 목재의 입수과정, 제작 장인의 이름, 원 소유자, 함께 소장

된 악보, 보수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악기이다. 이서의 친구가 금강산 만폭동의 벼락 맞은 오동나무를 가져오고 거문고의 장인 문현립이 제작했다. 옥동금 뒤편에는 소장자였던 이서의 친필을 집자(集子)한 옥동(玉洞)이라는 글자와 호연 윤두서의 아들인 낙서 윤덕희(駱西 尹德熙, 1685~1776)가 쓴 시가 새겨져 있어 거문고의 품격과 예술적 조형미를 높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는 "옥동금의 크기와 형태는 오늘날의 거문고와 다소 다르기 때문에 악기와 옛 음악을 복원하는 모델로서도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옥동금은 지난 2011년 11월 12일 후손 이효성 씨가 안산시에 기증해 성호기념관에 소장되어왔다.

전시장에는 이외에도 이익 선생의 학문과 사물의 이치를 기록한 '성호사설', 사대부의 관혼상제 사례를 기록한 '성호선생예식', 유교경전을 해석하고 연구한 '맹자질서', '대학질서', '소학질서', '논어질서' 등도 전

시한다.

또한 2014년 5월 1일 경기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이상의 영정, 부계팔경도(경기도 안산 부곡 일대를 팔경을 그린 8폭 병풍), 부계전도 등 자손들에 의해 보존되어 오다 기증을 받은 문화재도 전시되고 있다.

성호 일가의 가보는 목재 이삼환(木齋 李森煥 1729~1813)의 5세손 이덕구(李德九 1880~1951)와 그 손자 이돈형(李墩衡 1927~2002)이 지켜왔다. 이덕구가 후손에게 남긴 첫 번째 유언은 "선조가 저술한 서적, 필적(匹敵)과 선조들의 분묘(墳墓)를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니 보배롭게 여겨 감추어두고 잃어버리지 말거라"였다.

관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해설사의 안내를 원할 경우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문의: 성호기념관 ☎031-481-2574

김은미 명예기자 (jami34@hanmail.net)

### 독자/투고

## 안산시민 모두 '테레사'의 마음으로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사)안산돌봄미연대가 공동 주관하는 2014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가 舊 상록구청 행복나눔터에서 열려 성황리에 잘 마쳐졌다. 뉴스를 이번 브라보안산 소식지를 통해 알게 됐다.

많은 곳에서 김장용 양념재료와 물품을 후원하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너도나도 나서서 김장김치를 담갔다고 하는데 브라보안산에 나온 사진만 봐도 그 한장에 당시 이웃을 돕자고 나선 분들의 뜨거운 열기가 잘 드러나 있었다.

브라보안산에 나온 제목의 말처럼 이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우리 안산시의 소중한고도 아름다운 나눔의 문화로 확실히 자리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시민 모두가 외로운 분들을 한번 더 살펴보고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을 챙기는 의식이 확산되길 바라며 아울러 나의 생각을 한번 전해 보고자 한다.

일전에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매우 신비로운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하버드 의대생들이 직접 참가한 실험이었는데 한 그룹의 학생들은 돈을 받는 노동에, 다른 그룹의 학

생들은 아무런 대가가 따르지 않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실험을 마친 후 연구진은 학생들의 체내 면역기능의 변화를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돈을 받고 노동을 한 쪽보다 무료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서 나쁜 병균을 물리치는 항생체가 나타났고 면역기능도 크게 증강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마더 테레사의 전기를 읽게 한 다음 인체변화를 조사했더니 봉사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테레사 수녀의 전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인체의 생명능력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 다른 실험으로 학생들의 면역항체수치를 조사하여 기록한 뒤,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보여주고 그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면역항체수치가 실험 전보다 일제히 높게 나타났음을 발견했다.

이처럼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타인에 대한 봉사를 생각하거나 그 봉사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면역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두고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봉사와 사랑을 베풀며 일생을 보낸 테레사 수녀님

의 이름을 붙여 테레사 효과(Therese Effect)라고 공식적으로 이름 붙였다.

실제로 남을 도우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현저히 좋아지게 하고 엔돌핀이 평소의 3배 이상 분비되어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치게 된다고 한다.

봉사는 남을 위한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 얻는 기쁨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된다는 놀라운 진리가 나타나 것이다.

평생 험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돌보다 돌아가신 테레사 수녀께서 이끌었던 인도 켈커타의 봉사단체 사무실에는 지금도 이런 글귀가 걸려있다고 한다.

"만약 그대가 두 개의 빵을 갖고 있다면 하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내주고 또 하나는 그 빵을 팔아 히야신스 꽃을 사십시오. 그대의 영혼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평생을 가난과 험벗은 이웃을 위해 헌신하다 세상을 떠난 테레사 수녀.

우리 안산시민 모두 테레사같은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길 바라본다.

김세준 (상록구 본오동)

# 경기창작센터, ‘반거창리(半居創離)-잠깐 살며 창작하다 떠나기’展 열어



경기창작센터는 오는 2월 17일까지 2012년 기 입주작가와 2014년 해외입주작가 등 4인이 참여한 ‘반

거창리(半居創離)-잠깐 살며 창작하다 떠나기’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공통적 특징인 ‘임시적으로 허용된 공간과 시간’이 작가의 창작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내와 해외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해외 작가의 경우에는 입주기간동안 진행했던 대부도 지역과 한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리서치 결과를 비롯해, 3개월이라는 짧은 입주기간동안 새롭고 낯선 환경과 맞닥뜨리면서 어떻게 지역적·문화적·언어적 컨텍스트를 활용·응용·이용하여 본인의 관점으로 재해석했는지 그 결과를 다양한 변주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창훈 작가는 ‘칠하거나 지우기’를 통해 임시적으로 머물며 창작하다 떠나야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안에서 과연 작가의 창조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반문해보고자 한다. 브라질 출신의 작가 레나타 파도반 작가의 비디오 설치작업 ‘바다로 돌아간 소금(모든 경계의 해체를 위하여)’는 대부도의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작업으로써, 바닷물이 빠져나간 간조기간 동안 ‘소금’을 사용해 갯벌의 경계를 상징하는 다

양한 선들을 그린 후, 만조기간 동안 밀려오는 바닷물에 의해 경계가 해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이외 네덜란드 출신의 피터 브뤼닉스, 미국 출신의 줄리 업메이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경기창작센터에 잠깐 살며 창작하다 떠나야하는 작가들의 삶은 대부도를 비롯한 서해안의 지리적 특성인 조석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밀물과 썰물과도 닮았다. 어떤 작가는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창작행위를 하지만 동시에 본인의 작업을 지우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고 한다. 어떤 작가는 바닷물에 의해 본인의 창작물이 곧 사라질 테지만, 그것은 사라짐이 아닌 더 큰 바다와 하나가 되는 생성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지난 몇 달간의 입주활동을 마치고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갈 예정인 작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통해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는 전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경기창작센터 (☎ 032-890-4824)

이선희 명예기자(iamyou70@hanmail.net)

## 공연정보

# 안산청소년극단 뮤지컬 ‘시간 소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1월 8일(목)부터 11일(일)까지 뮤지컬 ‘시간 소년’ 공연

### 잊지 마! 이 빛나는 순간순간들을!

2013년 ‘제11회 행복한 세상 전국 청소년연극제’ 단체-금상, 개인-금상, 동상에 이어 ‘행복한 우리 동네 문예인 프로젝트’ 성과보고대회에서 최우수단체상까지 수상해 안산문화재단 청소년극단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린 청소년극단 <고등어>가 두 번째 창작뮤지컬 ‘시간 소년’을 무대에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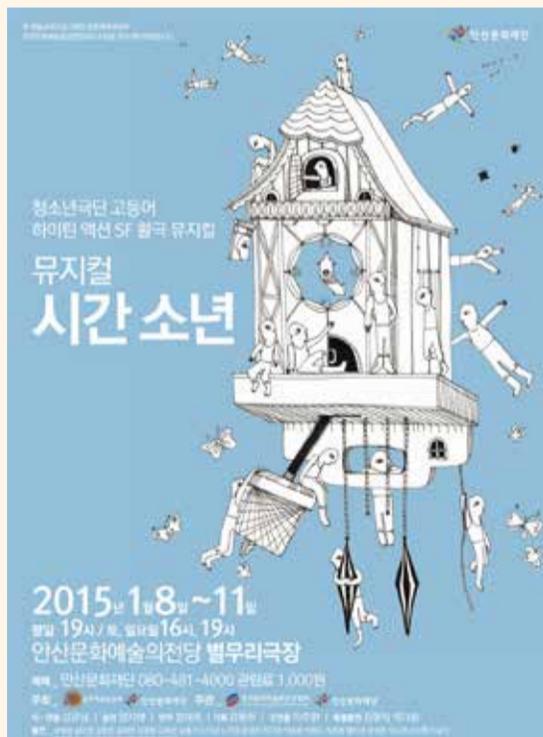
2013년 6월 창단한 <고등어>는 4개교 12명으로 시작한 안산청소년연합극단이다. 현재 강서고, 경안고, 원곡고, 부곡고, 디자인문화고, 성포고, 초지고 7개교 학생 30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뮤지컬 ‘시간 소년’은 2014년 11월 낭독공연을 통해 관객에게 미리 선보인 작품이다. 쇼케이스 공연을 통해 관객의 반응을 확인한 후 2개월 동안 수정 보완하여 작품을 완성했다.

‘시간 소년’은 청소년들의 학교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약간은 장난스러운 대사와 음악으로 꾸며진다.

극단의 첫 뮤지컬 작품인 ‘윈터호러하우스’의 작곡자 양지해가 작곡을 맡았으며,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극단 <동네풍경> 김규남 대표가 연출을 맡았다.

김규남 연출은 “그동안 청소년 문제를 다룬 연극이나 뮤지컬은 어두운 현실을 극복해나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문제를 좀 더 우화적으로 풀어보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 시간 소년-시간을 달리는 소년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현재까지 왕따가 아닌 적이 없던 왕따의 대명사 봉수는 오랫동안 갈고 닦은 무술실력과 치밀한 계획으로 자기를 괴롭히던 일진 대장 대영에게 멋지게 복수한다. 자기 대신 왕따가 된 대영을 자신이 당한 똑같은 방법으로 괴롭히는 봉수는 친구들 사이에서 대영보다 더 악독한 대장이 되고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봉수를 따르게 된다.

왕따가 된 대영은 한때 노벨상 후보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자물리학 박사였던 김 박사를 만난다. 박사의 실험대상으로 대영은 시간을 멈출 수 있는 ‘타임 슬립’ 능력을 갖게 된다.

대영은 타임 슬립을 이용해 봉수를 물리치고 다시 일진 대장의 자리를 찾지만 타임 슬립을 사용하면 멈춘 시간의 5만 배의 시간만큼 자신의 존재가 잊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친구들이 자신을 잊는 것이 두려운 대영은 능력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축제날, 봉수와 아이들의 다툼과 실수로 학교에 화재사건이 터지고, 반 아이들이 건물에 갇히자 결국 대영은 타임 슬립 능력을 사용하고 반 아이들 모두가 무사한 가운데 아이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건물을 탈출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아무도 대영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얼마 후, 어딘가 낯설지 않은 전학생이 나타나는데...

‘시간 소년’은 선착순 입장이며, 공연 1시간 전부터 티켓을 판매한다.

| 일 시 : 2015년 1월 8일(목)~1월 11일(일)

평일 오후 7시, 토·일 오후 4시, 7시

| 장 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 관람료 : 전석 1천원

| 연 령 : 14세 이상

| 문 의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 080-481-4000)

신선영 명예기자(woghk@hanmail.net)

# 신년사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와 설렘을 주는 가슴 벅찬 일입니다.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일터가 생기고, 농업인의 풍년 농사와 상업인의 대박 장사, 그리고 기업인과 근로자 모두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도약의 해가 되기를 빕니다. 또한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와 함께 기쁨과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의 모습도 꿈꿔봅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스쳐 지나간 과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질 기억 정도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기에 새로운 희망과 다짐을 세우기 위한 교훈으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올해는 제7대 안산시의회가 출범 2년차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된 지도 6개월이 되었습니다.

‘반성과 신뢰’, ‘참여와 소통’, ‘관용과 배려’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제7대 안산시의회가 모범적인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의정 현안을 풀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때로는 스물한 명 의원 전체의 목소리로, 때로는 각자 소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목소리로, 때로는 각자의 약속과 실천으로 제7대 안산시의회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굳건한 믿음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2011년 이후 대한민국은 줄곧 2~3%대의 저성장의 늪에 갇혀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드물고, 살

림살이는 힘들기만 합니다.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돈이 돌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어 대한민국 간판 기업들의 실적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어려움은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대다수 근로자의 지갑을 얇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고 설계하면서 어렵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의지를 가졌고, ‘위기는 곧 기회’라는 무한 긍정과 가능성을 찾아내는 지혜를 발휘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한 것은 보다 견고하게 다지는 자세로 의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5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산시의회 의정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안전에 관한 사회적 가치를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은 비용이 들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우리 사회의 폐습은 ‘세월호 사고’라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물은 이미 었질러졌습니다. 맹목적인 후회보다는 처절한 반성이 따라야 합니다. 안산시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시민 화합과 상생을 위해 세월호 사고의 올바른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에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내실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새로운 변화를 본격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갖춰진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보상 내지 배상, 그리고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아가겠습니다.

### 둘째,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일자리와 경제 활력은 민생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70~80년대 고도 성장기 후 줄곧 일자리 부족은 서민들의 실질적 삶을 팍팍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로 안산시 생활경제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먹고사는 것이 고단한 서민들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이 바로 경제 활성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통해 소득이 늘고, 소득이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 경기가 활성화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시 집행부와 함께 전력을 다해 안산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충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 셋째,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복지, 균형 잡힌 복지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겠습니다.

복지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도 예외 없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복지의 비중이 높아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르신과 보육, 여성,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얇기만 합니다. 저는 복지의 여러 면을 지금 보다 더 키우고 넓혀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 보편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 중 하나만을 선택하지는 않겠습니다. 소득, 돌봄, 주거, 건강, 보육, 교육 등 복지의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에 따라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취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견지하겠습니다.

### 넷째,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각종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치와 행정은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의회의 의정은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의 정신을 한 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안산시의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활동 또한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생 위주의 정책을 개발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아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균형적인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 기능을 충실히 하는 ‘기본이 튼튼한 의회’를 만들어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합리적인 견제와 솔직한 협력의 조화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2015년 을미년은 양띠의 해이기도 합니다. 양은 반드시 가던 길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양의 정직과 우직함을 마음속에 새겨 안산시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 나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 살림살이가 넉넉해져 안산시의 민생이 편안해지도록 안산시의회 의원 모두 손잡고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을미년(乙未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5. 1. 1.

안산시의회의장 **성준표**

# 1월 22일, 선부도서관 개관

## 3층 열람실과 노트북실 사전 개방해



2015년 1월 22일 개관하는 선부도서관이 지난 12월 22일, 3층 시설을 사전 개방했다.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3층 열람실(120석)과 노트북실(22석)을 먼저 개방한 것이다.

선부도서관은 선부동 1068-1번지 석수골운동장 내 위치하며 지상 3층(연면적 1,082.57㎡) 건물로 1층에는 안내실, 어린이자료실, 유아자료실, 문화교실, 동아리실이 있으며 2층에는 종합자료실, 사무실

이, 3층에는 열람실, 노트북실, 쉼터가 있다. 전체좌석은 자료실 및 열람실을 모두 포함하여 262석이며 실외주차 45대가 가능하다.

이번에 개방한 열람실과 노트북실 운영시간은 동절기(11월~2월) 기준 오전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이용가능하며 향후 개관할 자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정식개관 후에는 도서열람 및 대출·반납, 상호대차, 독서문화행사 등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안산시에는 작은도서관을 포함해 총 27개관의 도서관이 조성되었으며 '1동 1도서관 조성' 사업으로 2015년에는 대부도 도서관과 37블럭 특화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 | **이용시간** : 화요일~일요일(오전 9시~오후 6시)
- |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 | **문 의** : 선부도서관 ☎ 031-481-3885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 산후조리 염려마세요!

###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돕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

안산시는 새해 2015년부터 아기를 낳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산후조리 비용 일부를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예전에는 딸이나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2~3주 산후 뒷바라지를 해줬다. 핵가족화한 요즘은 많은 산모들이 가족의 보살핌 대신 조리원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는데, 조리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2주에 2~3백만 원이 넘는 이용요금은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

안산시는 산후조리 서비스 비용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저출산시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산후조리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아기를 낳은 산모 중에서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신청일 현재 안산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로 가

구소득 규모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산후조리원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45만 원이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는 집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7일간 전문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산모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 서비스 비용 지원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 **문의** : 상록수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481-5975~8
- 단원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481-2552, 2573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 안산의 숨은 맛집은 여기!

### 안산 생생맛집 탐방 블로그 운영 경제 활성화 불씨 되길

안산시는 국내·외 유동적인 경제 환경과 세월호 참사 여파로 가라앉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지난 12월 15일에는 안산의 숨은 맛 집을 찾아 소개하는 안산 생생맛집 탐방 블로그(<http://blog.naver.com/danwon9w>)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자기만의 고유한 비법으로 독특한 맛을 내는 소규모 식당 5곳을 찾아 소개했다.

안산 생생맛집 탐방 블로그는 대형업소보다는 중소형 업소를 우선해서 소개한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홍보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소규모 식당을 찾아, 전문 블로그 제작기관이 직접 방문해 그 식당만의 고유한 요리법을 소개하고, 식당주인의 마음자세, 식당이 위치한 장소 등을 블로그에 올린다.

이번에 소개된 식당 5곳은 지난 11월부터 안산시와 안산시음식업지부, 지역상인회 등이 의견을 모아 추천했던 곳으로 1차 현장 점검과 2차 비공개 점검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맛집 선정에는 주관적인 맛의 기준을 얼마나 객관화하느냐는 어려움도 있었다. 또 평가지표 마련을 위해 제시된 자료의 객관성을 증명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인 1조가 되어 제시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1차 현장 점검을 했다. 2차 비공개 점검에서는 1차 점검에서 상위 평가된 10개 업소를 환경위생과 직원이 직접 손님으로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서비스 등을 살피는 방식을 취했다.

시는 올 2015년에는 블로그에 소개할 업소를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블로그 운영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불씨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맛집 소개 파워 블로그로서 업소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건전한 외식문화가 정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문의** : 단원구 환경위생과 ☎ 031-481-6241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456,000	44,196	25,248	44,821
3인	2,141,000	64,818	58,462	65,650
4인	2,418,000	73,321	72,404	74,266

(2015년 1월 신청자까지 적용 → 2015년 2월 신청자부터 변경된 소득기준 적용)

건강칼럼

## 여성들이 궁금해 하는 유방질환 진단 Q&A



이천환 한사랑 병원장  
안산시 의사회 회장

### ■ 유방 이상 진단, 어떻게 하나요?

한국유방암학회 및 국립암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35세 이상부터는 2년에 한번 정도, 40세 이후부터는 1~2년에 한 번씩 전문의에게 검사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방촬영술은 40세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이용하여 2년마다 검사할 수 있습니다. 유방 초음파검사는 매달 월경 후 5~7일째 되는 날 진행하며, 유방촬영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젊은 여성, 임신부 및 여성호르몬 치료를 받는 여성 그리고 치밀유방이나 유방촬영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 역시 초음파 검사를 해야합니다.

### ■ 유방질환의 주요검사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유방질환의 주요검사방법으로는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검사가 있습니다. 유방촬영술은 유방 석회화, 치밀유방, 유방암 등 유방질환에 적합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입니다. 유방초음파는 외국인에 비하여 치밀유방이 많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유용한 검사방법입니다. 특히 30세 이하의 여성에서는 유방촬영상 유선조직이 많고 하얗게 나와 병변이 있어도 가려져서 못 찾는 경우에 초음파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방촬영술을 통하여 발견된 병변의 정밀검사, 치밀유방의 2차검사 그리고 조직검사가 필요할 때 정확한 위치선정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 ■ 유방암은 알겠는데 치밀유방, 미세석회화는 무엇입니까? 치료가 꼭 필요한가요?

치밀유방이란 유선이 치밀한 유방으로 질병이 아닙니다. 다만 유방촬영을 했을 경우 조직이 치밀하여 내부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초음파검사를 병행합니다.

를 병행합니다.

유방미세석회는 유방촬영술에서 보이는 칼슘덩어리이며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악성 석회화가 의심되면 조직검사를 통하여 판별해야 합니다.

### ■ 검사와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맘모톰시술

유방외과에서 유방촬영기, 초음파 이외에 '맘모톰'이란 장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맘모톰은 조직검사와 동시에 종양절제가 동시에 가능한 시술법입니다. 젊은 여성에게서 발견된 양성종양(섬유선종)은 암으로 변화 위험은 적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 출산과 수유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사전에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는 양성종양이 악성종양(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에는 수술로 치료하던 것을 현재는 맘모톰 시술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 이럴 때 병원을 찾으세요.

- 유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덩어리가 만져질 때
-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유두가 함몰되었을 때
- 피부에 발적 등 외관상 변화를 보일 때
-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만져질 경우

위와 같은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경우라도 만 40세가 되면 국가암검진을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생명 구할 수 있어요!

### 안산시자살예방센터, 한 해 활동 돌아보고 새 희망 담아

“소중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안산시자살예방센터는 지난 12월 22일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발표하는 사업보고회를 열었다. 김윤희 센터장은 보고회에서 우울한 일들은 이 자리에서 다 털어내고 웃고 살자고 말했다. 안산시의사회 이천환 회장은 “사람은 주변에 터놓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쉽게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며 “우리가 서로에게 터놓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말했다.

자살예방센터는 2013년 7월 상록수보건소 3층에 문을 연 이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자살위험상담전화(☎1577-0199)의 접근성을 개선해 자살예방센터로 직접 연결이 가능하게 했고, 번개탄 포장지에 생명사랑 문구와 상담 전화번호를 기재해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시도를 막으려고 노력했다. 자살사망자의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사망 원인을 분석해내고 효과적 자살예방대책 수립의 근거 또한 마련했다.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어르신, 군인 등을 대상으로 우울증 예방 교육과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생명사랑 토티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통·반장이 중심이 되는 게이트키퍼-생명지킴이 활동을 펼쳤다. 제조업 근로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공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울증과 자살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자살 고위험자 조기발견·대응과 사후관리로 방문보건요원, 경찰, 게이트키퍼, 종교인, 민간단체 등 범시민이 참여하는 자살고위험군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진료 연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자살 시도자 가족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역 내 공공기관과 복지기관, 정신보건기관과 연계한 사례관리를 해왔다.

안산시자살예방센터는 새해 자살예방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인력 재배치 등 조직 개편과 자살고위험군 등록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상담과 가정방문 등의 사례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월 1회 자조모임 이외에 주 1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자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한다. 현재 월 1회 자조모임으로 진행되는 자살 유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향후 6회 차 프로그램으로 추가 진행하고, 자살 유가족을 돕기 위한 홍보를 장례식장이나 경찰서 등지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 문의 : 안산시자살예방센터 (☎ 031-418-0123)  
자살위험상담전화 (☎ 1577-0199)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 금연!

### 상록수보건소, '공직자 금연교실' 운영



상록수보건소는 지난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 금연!'을 주제로 공직자 금연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금연교실은 담배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 금연정책에 발맞추어 공직자가 먼저 노력해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흡연은 각종 암을 유발하고 청소년의 성장발육을 저해하며, 임신 중 흡연은 유산의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치아의 니코틴 착색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치석 형성을 증가시켜 치주질환 등 다양한 구강질환을 유발시킨다.

이번 금연교육에서 시 공무원 40여 명은 금연·흡연 등 각기 다른 환경에서 콩나물을 길러보는 실험을 하고, 일산화탄소 측정 등 체험활동을 통해 흡연의 폐해에 대해 직접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처음 흡연을 시작한 때와 흡연을 하게 된 동기를 '나의 흡연발자취' 시간에 짚어보면서, 교육이 끝나면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금연에 성공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흡연이 내 몸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담배를 끊지 못했다. 이번 금연교실 참석을 계기로 꼭 금연에 성공해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귀감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상록수보건소는 연중 무료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금연에 대한 전문 상담과 니코틴 보조제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단계별로 금연 활동을 도와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성공 단계별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문의 : 상록수보건소 금연클리닉 (☎ 031-481-5899, 5921)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 사진으로 보는 안산



① 전통혼례 (안산문화원)



② 단원각 (화랑유원지)



③ 안산문화광장 (고잔동)



④ 안산읍성객사 (안산동)

①, ④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 ②, ③ 사진 성연범 명예기자 <yb1244@naver.com>

## 법률칼럼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란?



이병길 변호사  
안산시 법률 자문관

**질문** 김갑동 씨 소유의 토지에 이을석 씨가 건물을 지어 살고 있습니다. 이을석 씨의 건물 점유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임대차계약이 되어있었으나, 차임연체액수가 2기분에 달하여 계약은 해지되었고 이을석 씨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김갑동 씨에게 인도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원매자(사고자하는 사람) 박병순 씨가 나타나 계약 교섭중이라는 정보를 김갑동 씨가 입수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답변** 이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을석 씨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한 끝에 김갑동 씨가 승소하였다고 해도 소송 진행 중에 그 점유가 이을석 씨로부터 박병순 씨로 넘어가면 그 판결은 무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박병순 씨를 상대로 해서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참조).

이러한 경우 이을석 씨를 상대로 부동산(사례에서는 건물)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두면, 그 이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박병순 씨는 김갑동 씨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을석 씨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을 박병순 씨에게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 1.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자하는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피보전권리는 대부분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이지만 사안과 같이 자기소유 토지상의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를 본안으로 하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 2.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예

우선 사안과 같은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1매수인이 매도인의 또 다른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목적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두는 경우입니다.

#### 3. 집행방법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의 신청이 이유 있으면 법원사무관은 부동산등기부의 갑구란(소유권에 관한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임)에 가처분의 취지를 기입하도록 관할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 중심 안산특별시

장수풍뎡이, 사슴벌레, 전갈, 타란툴라 등  
신기한 곤충이 한자리에...

겨울방학 도심에서 만나는

# 애완 곤충 체험전

언제? 2014. 12. 29. ~ 2015. 1. 23.  
AM 10:00 ~ PM 17:00 (1월 1일은 쉽니다.)

어디? 와동주민센터 2층 전시실

| 주관 | 와동 좋은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  
| 문의 | ☎031-481-6451, 6701

## 대부도 전담 종합행정을 위한 「대부해양관광본부」개청 안내

- 명 칭 : 안산시 대부해양관광본부(사업소)
-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31(구 : 대부북동 1836-8번지)  
※ 대부북동 삼거리에서 동사무소 방향 약200m 지점
- 업무개시 : 2015년 1월 1일부터
- 부서별 업무안내
  - 대부개발과**
    - 대부개발 정책 및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추진
    -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공중위생 인·허가 등 대부도 관련 인·허가 업무
    - 가로청소, 불법 광고물 정비 등 환경정비 업무
    - 대부도 가로청소 및 생활(불편)민원 처리
    -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부문별한 개발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 등
  - 관광과**
    - 관광정책 종합개발 계획 수립
    - 관광자원 개발, 관광상품 개발, 관광마케팅
    - 관광축제 개발 및 운영
    - 다시 가고 싶은 대부도 만들기
    - 관광사업(숙박시설, 여행업 등) 등록 및 관리 등
  - 해양수산과**
    - 해양정책 및 기획에 관한 사항
    - 해양생태마을 조성 및 해양환경보호
    - 수산자원 조성
    -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개발 등
- 문 의 : 대부해양관광본부 대부개발과 대부정책계  
(☎031-481-6981)

※ 그동안 와동주민센터 내 대부도시개발계, 대부산업계에서 처리하던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대부산업 업무는 2015.1.1일부터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처리합니다.

### 2015년 안산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

□ 수행기관

연번	수행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1	상록구노인복지관	안산시 상록구 고잔로 162 (성포동)	☎ 414-2271
2	단원구노인복지관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34(선부1동)	☎ 405-1188
3	동산노인복지관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 8(사1동)	☎ 400-8703
4	상록구노인지회	안산시 상록구 고잔로 162(성포동)	☎ 410-3623
5	단원구노인지회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 1로 134 2층 (선부1동)	☎ 403-8787
6	안산실버인력뱅크	안산시 상록구 고잔로 162(성포동)	☎ 482-4546
7	안산시니어클럽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초지동)	☎ 401-8181

□ 공통사항

- 신청대상 : 만 65세이상 안산시 거주 어르신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에 부합하는 어르신)
- 급 여 : 월 20만원 (단, 시장형은 예외)
- 접수서류 :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연금 최근입금내역통장 사본, 반명함 사진1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월이내), 개인정보동의서(자필서명)
- 접수기간 : 2015. 1. 12(월) ~ 1. 16(금)

취업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구인·구직을 위한 **일자리박람회**

# 안산 919 취업광장

| 일 시 : 2015. 1. 19.(월) 14:00~16:00  
| 장 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 (민원동 2층)  
| 내 용 : 구인구직 현장면접, 일자리관련 부대행사  
| 준비물 : 이력서, 자기소개서



안산일자리센터  
취업상담안내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위 치 : 안산시청 민원동 2층
- 전 화 : ☎ 031-481-2919

2015. 1. 1.부터 시청 민원실 운영시간 변경

월요일 ~ 금요일 08:00부터 22:00 까지 ※ 토·일·공휴일 운영시간 변동없음 (09:00~18:00)

연재 안산탐방

# 건건동

乾乾洞

## 지명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廣州) 북방면(北方面) 건건리(乾乾里)라 했다가 칙령 제49호에 따라 1906년 9월24일 안산군(安山郡) 북방면 건건리가 되었으며, 총독부령 제111호에 의거 1914년 3월 1일 건건리가 속한 북방면이 수원군(水原郡)으로 이관되었고, 4월 1일 북방면이 성곡면·월곡면과 통합되어 반월면(反月面)으로 개칭되어 수원군 반월면 건건리가 되었다. 그 후 대통령령 제161호에 따라 1949년 8월 15일 화성군(華城郡) 반월면 건건리가 되었다가 대통령령 제14434호에 의거 1994년 12월 26일 안산시 건건동이 되었다.

건건동이란 지명은 조선 중기 한응룡(韓應龍)이 광주(廣州)로 이사하던 날 하루종일 날씨가 건건(乾乾)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한응룡이 건건리 창말에 처음 터를 잡았는데 땅이 암반지대여서 물이 안 나기 때문에 건건리라고 했다는 설이 있다. 한편 건건리의 '건'이 하늘 건(乾)자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위의 설이 틀렸다고 하는 이도 있다.

## 옛 지명 유래

가잔물은 가재우물이라고 하며 마을의 가장자리에 있다.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쓰던 우물이다. 건너치미는 장촌(아랫삼천이) 건너편에 있는 산으로 치미산(鷓尾山)을 말한다. 건지미는 건건동의 끝 부분에 위치한 자연마을로 처음에는 꼬리미(尾)자를 써서 건지미(乾芝尾)라고 했으나 용담뿌리에 주막이 생기면서 맛미(味)자를 써서 건지미(乾芝味)로 쓰고 있다고 한다. 두물반이는 군포시 도마교동에서 내려오는 하천과 사사동의 칠보산에서 내려오는 하천, 두 물이 합쳐져 건건천이 되는 곳이라 두물반이라고 한다.

막골은 맨 끝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라고 한다. 말뚝내는 현재 외곽도로 건건천 다미길 부근으로 바닷물이 들어올 때 배의 말뚝을 박았던 곳이라는 설과 하천 독의 붕괴를 막기 위해 말뚝을 박았다는 설이 있다.

삼천리는 세 개의 골짜기가 있어 그 모습이 내천(川)자와 같다고 해서 삼천리라고 하는 설과 막골·덧골·메골 등 세 개의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이 한 하천으로 모인다고 해서 삼천리라는 설이 있다. 또 우물이 세 군데 있어 샘천(泉)을 써서 삼천리라는 설도 있으며, 언젠가는 3천 가구의 집이 모여 살 동네라는 전설도 있다.

덧골은 골이 깊은 구렁텅이여서 덧골이라고 불렀다. 절골은 예전에 절이 있었던 곳이어서 절골이

라고 부른다. 자라산은 자라처럼 생긴 산이어서 자라산으로 불렸으며 현재 인정아파트와 산호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 원래는 청룡산이라고 하며, 일명 거북산으로도 불린다.

창말은 조선 초기부터 고을 일대의 양곡(또는 군량미)을 저장하던 창고가 설치되어 있던 곳이어서 '창말[倉村]'이라고 했다 한다. 조선 중기 한응룡이 입향하면서 청주 한씨의 세거지가 되었다. 건건동 353번지 농지를 창밭[倉田]이라고 부르고 있다.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파면 불에 탄 벼 알갱이가 발견되기도 하며 현재 대림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자료제공 : 안산문화원(안산시사 제5권)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사진 성연범 명예기자 (yb1244@naver.com)



# 2015년 청양의 해



글.그림 이영호(kajebi05@naver.com)

